

대한수학회소식

Newsletter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국회의원회관 전경 (제33회 수학교육 심포지엄 개최지)

학회상 수상자 소개 2016년도 대한수학회상 교육상, 논문상 수상자 소개
원로수학자와의 대화 소중한 만남, 하기식 교수님
화제의 수학자 John F. Nash, Jr.를 추모하며
정부, “산업수학 육성방안” 발표
제24대 대한수학회 회장 선거 공고

대한수학회소식

제 167호 2016. 05

The Newsletter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통 권 : 제 167 호 (격월간) 등록번호 : 마2588(등록일 1996. 5. 25)

발행일 : 2016년 5월 31일 발행인 : 이용훈 편집인 : 배형욱

발행처 : 대한수학회 (06130)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202호

전 화 : 02-565-0361(대) FAX : 02-565-0364 E-mail : kms@kms.or.kr

홈페이지 : <http://www.kms.or.kr> 인쇄처 : JETI재능인쇄

Contents

- 02** 2016년도 대한수학회상 교육상, 논문상 수상자 소개
- 05** **중등교육** 신현성
유립수학교육학회 정기발표회 주요 발표 소개
- 12** **기관소개** 선해상
울산과학기술원 자연과학부 수리과학과 (수리과학트랙)
- 15** **원로수학자와의 대화** 변순식
소중한 만남, 하기식 교수님
- 19** **화제의 수학자** 김세익
John F. Nash, Jr.를 추모하며
- 23** **해외 한인 수학자** 강미현
현지 교수 생활의 경험담
(오스트리아 Graz Univ. of Technology)
- 26** **신임교수 소개**
POSTECH 수학과 김건우 교수
- 28** **국제학생 유학기** Chacha Stephen Chacha
My Life Experience in KOREA and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TANZANIA to KOREA - 공부를 위해서 탄자니아에서 한국까지)
- 31** **학회후기** 서수길
2016 대한수학회 봄 연구발표회 보고
- 34** **정부, “산업수학 육성방안” 발표**
- 38** **제24대 대한수학회 회장 선거 공고**
• 회장 입후보자 공고
• 회장 입후보자 이력서 및 소견서
• 선거권자 공고
- 49** **수학계 소식**
• 화제의 뉴스 • 학회 소식 • 공지사항
• 회원 동정 • 내한 수학자 • 세미나 & 학술회의

대한수학회소식 편집위원회

위원장 : 배형욱(아주대학교)

위 원 : 강동승(단국대학교) | 권세란(대림대학교) | 노유미(인천대학교)
노재욱(한림대학교) | 민조홍(이화여자대학교) | 박부성(경남대학교)
박진해(충남대학교) | 이용훈(전북대학교) | 이은경(부산대학교)
홍성금(조선대학교) | 황형주(포항공과대학교)

조 판 : 안혜정

현지 교수 생활의 경험담 (오스트리아 Graz Univ. of Technology)

강미현 (Graz Univ. of Technology)

나는 2012년 1월부터 오스트리아 그라쯔공대 (Graz Univ. of Technology)에서 이산수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 이전에는 2001년 KAIST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독일 베를린훔볼트대학(Humboldt Univ. of Berlin)과 뮌헨루드비히막시밀리안대학(Ludwig Maximilian Univ. of Munich)에서 박사후연구원, 프리바트도첸트(Privatdozent; 객원 강사), 방문교수 등으로 재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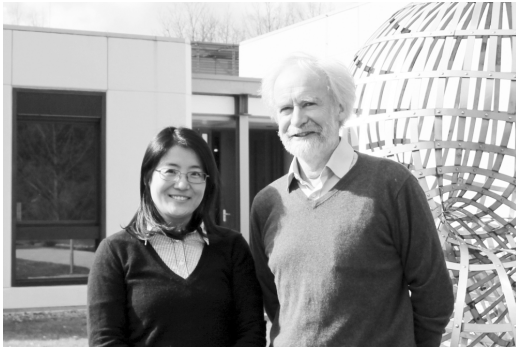
박사학위 취득 후 현재까지 수학자로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의 하이젠베르크펠로우 시기이다. 이 시기동안 나는 수업을 담당하지 않으면서 수학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일과학재단의 하이젠베르크펠로우십을 받아, 독일 베를린자유대(Free Univ. Berlin), 영국 옥스퍼드대(Univ. of Oxford), 미국 뉴욕대(New York Univ.) 등에서 장기 방문 연구를 했다. 그때 방문했던 수학자들과는 현재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공동연구파트너로서 나의 연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로 하이젠베르크프로그램은 1977년 이래 지속되어온 독일과학재단의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독일대학의 정교수 임용자격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09년 봄학기에 나는 확률론적 조합론의 대가인 영국 옥스포드대의 콜린 맥더미드(Colin McDiarmid) 교수를 방문해 평면랜덤그래프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하였다. 그 당시 유서 깊은 머튼 컬리지의 펠로우즈퀴트에 묵었던 기억, 옥스포드의 정원들, 도서관, 서점들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2016년 봄학기에는 나의 박사과정 학생들 중 한 명이 옥스포드대를 3개월 정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2009년 가을학기에는 확률론적 방법론의 대가인 미국 뉴욕대 조엘 스펜서(Joel H. Spencer) 교수를 방문해 랜덤그래프프로세스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하였고, 2016년 가을학기에는 스펜서 교수의 박사과정 학생이 그라쯔공대를 2개월간 방문할 예정이다.



2014년 4월 “조합론과 확률론” 오버볼파흐 워크숍 참석 기간 중 콜린 맥더미드 교수와 함께



2014년 9월 미네소타대학 IMA Thematic Year on Discrete Structures 참석 기간 중 St. Crox 강변에서 조엘 스펜서 교수와 함께

나는 2011년 봄학기에 뮌헨루드비히막시밀리안 대학에서 방문교수로 강의를 했다. 이는 그때까지 독일어로 큰 강의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았던 나에게, 연구자로서만이 아니라 강의 교수자로서도 경력과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12년 오스트리아 그라쓰공대에 이산 수학 교수 및 최적화와 이산수학연구소 소장으로서 부임한 후 내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나의 역할과 책임에 있다. 그 전까지 연구에 대부분의 시간과 능력을 쓸 수 있었던 수학자로서의 나는, 그라쓰공대 부임 당일부터 수학자, 강의 교수자 그리고 대학행정가라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이런 역할의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라쓰공대는 나에게 리더십프로그램과 개인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었다. 그라쓰공대는 과학-연구-경제부(Bundesminister für Wissenschaft,



2015년 11월 멘토-멘티 만남에 참석한 나의 멘토 안톤 짜일링거(Anton Zeilinger), 그라쓰공대 총장 하랄드 카인쯔(Harald Kainz)와 부총장 안드레아 호프만(Andrea Hoffmann)과 함께
(사진 출처: Lichtmeister - TU Graz)

Forschung und Wirtschaft)의 지원을 받아 “Leading Women - Shaping the Future”라는 리더십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Austrian Academy of Sciences)의 원장이자 빈대학(Univ. of Vienna)의 물리학자 짜일링거로부터 Leading Scientists에 대해서 2014년 11월부터 멘토링을 받고 있다.

유럽에서 수학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국제 학술대회 등을 동료들과 함께 개최해 왔는데, 그 중 그라쓰공대 부임 이듬해에 개최했던 가을학교 “Phase Transition in Random Discrete Structures”가 기억에 남는다. 이 가을학교에서는 오스트리아 과학재단(Austrian Science Fund)과 유럽과학재단(European Science Foundation)의 지원으로



2013년 9월 그라쓰 공대에서 개최된 가을학교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 출처: Doctoral Program “Discrete Mathematics”)

20여 명의 박사과정 학생들과 박사후연구원들을 초청하여 무작위 이산구조의 상전이에 대한 집중 교육을 하였다. 이들은 몇 년 이내에 비슷한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료 수학자들로 커나갈 것이다.

여기까지의 경험들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과 별 관련이 없는 듯하다. 내가 특별히 한인수학자로서 하게 된 경험들을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나는 2010년과 2011년에 KAIST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확률론적 방법론과 해석학적 조합론에 대하여 집중강의를 했다. 이때 한국 학생들의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서 강의하는 것이 매우 신이 났었다. 이런 우수한 한국 학생들이 오스트리아로 유학 오기를 바란다.

둘째, 2014년 8월은 많은 한국인 수학자들에게 특별하다 -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나와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의 인연은 2008년 6월에 시작된다. 그때 나는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교수임용자격논문(Habilitation)이 통과되어 프리바트도켄트로 재직하고 있었고, 베를린공대의 수학자 마틴 그레첼은 베를린의 대학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신진여성과학자지원 ProFil 프로그램'에서의 내 멘토였다. 그래서 당시 베를린훔볼트대학을 방문 중이던 김정환 교수와 국제수학연맹 사무총장 마틴 그레첼(Martin Groetschel)의 베를린대담을 주선하고 그들의 대담프로토콜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며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개최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 2012년 이후 나는 국제수학연맹과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준비위원회의 Liaison 역할 및 국제수학연맹총회 조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나는 한인수학자로서 서울세계수학자대회 및 국제수학연맹총회의 준비 및 실행기간 동안 행사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 지면을 빌려 서울세계수학자대회 및 국제수학연맹총회를 위해 일하셨던 모든 분들께 함께 최선을 다했고 잘 해냈음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행사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동안 유럽에서 쌓아왔던 내 경험들, 가치관, 의사소통 방식이

한국의 그것들과는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아는 지인에게 들은 바에 비추면, 아마도 맞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하여 이 지면을 통해 내가 의도하지 않게 불편하게 해드린 분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때때로 나를 잘 아는 유럽인 동료들이 “미현, 너는 한국 수학자야, 오스트리아 수학자야?”라고 내게 묻곤 한다. 그런 질문에 나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수학자야”라고 대답한다. 우문우답인가? 수학은 국제적이어서, 국적과 국경은 별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약 15년 전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내 연구 분야의 대가들을 찾아 독일로 왔다. 그 이후 독일에서 수학자로서 활동을 했고, 나에게 교수직을 부여한 오스트리아에서 현재 수학자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수학자인 나에게 어디에서 어떤 국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함과 동시에 “나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수학자가 맞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한국에서 강연을 초청받으면, 나는 다른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한국에서의 강연 초청을 매우 반갑게 응한다. 그리고 나는 강연을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국에 언제 또 오게 될까, 한국을 벌써 그리워한다.

2016년 2월 9일 그라쯔에서 강미현

강미현 교수 약력	
2001	KAIST 수학과 (박사)
2001 ~2008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Humboldt Univ. of Berlin
2008 ~2011	DFG Heisenberg Fellow (Free Univ. Berlin, Univ. of Oxford & New York Univ.)
2011	Visiting Professor, Ludwig Maximilian Univ. of Munich
2012 ~현재	Full Professor, Graz Univ. of Technology
연구 분야	Discrete Mathematics: in particular random graphs, random planar graphs, random discrete structures, probabilistic combinatorics, analytic combinatorics, enumerative combinatorics, analysis of algorithms KMS